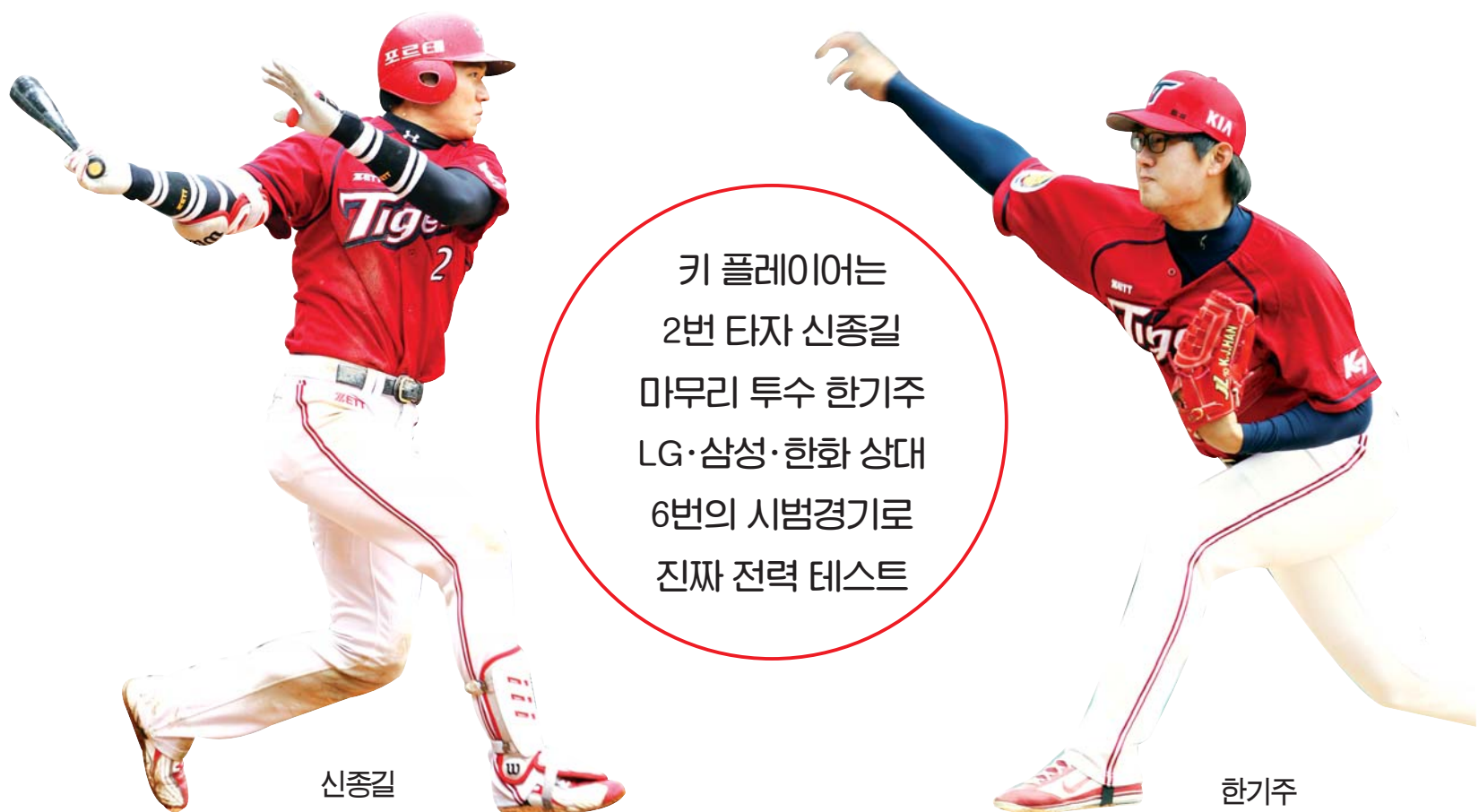




실험은 끝났다 이제 실전이다

이용규

KIA 27일부터 광주 시범경기 ... 선동열호 '베스트 라인업' 가동



키 플레이어는
2번 타자 신종길
마무리 투수 한기주
LG·삼성·한화 상대
6번의 시범경기로
진짜 전력 테스트

신종길

한기주

KIA의 2012시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시범경기를 갖는다. 천연잔디 구장으로 탈바꿈한 홈에서 첫 경기를 갖는 KIA는 본격적인 라인업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선동열 감독은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을 살펴보는 단계였다면 홈 경기에서부터는 베스트 멤버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시범경기 이후에는 야간 청백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시즌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고 시즌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KIA는 앞으로 LG·삼성·한화를 상대로 6번의 시범경기를 더 치른다.

광주-대구-광주로 이어지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천정에서의 첫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동열 감독의 구상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종길과 한기주가 타선과 마운드 라인업 구성의 변수다.

팀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신종길은 선 감독이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가장 공을 들여온 선수 중 하나다. 빠른 발과 함께 파워도 갖추고 있어 선 감독이 그리고 있는 '공격형 2번' 타자에 가장 적합한 선수이기도 하다.

기대만큼 신종길이 2번 자리를 꿰차준다면 KIA는 이병호·김상현과 함께 안치홍·나지완을 중심타선에 포진시켜 공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길이 '꾸준함'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안치홍이 전면에 배치 될 전망이다. 신종길의 움직임에 따라서 KIA 타선의 전반적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마운드에서는 한기주가 키를 쥐고 있다.

한기주는 선 감독이 우선으로 꼽고 있는 마무리 후보다. 한기주가 뒷문을 지켜준다면 윤석민·서재용·라미레스·앤서니·박경태로 선발진 구성을 끝내고 중간 계투진 조립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한기주 마무리'가 준비 되지 않는다면 변형된 선발진으로 임시 마운드를 구성해야한다. 출발부터 난관이다.

27일에는 라미레스가 홈런틀 앞에 첫 선을 보인다.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피칭을 보였던 만큼 라미레스에게는 부담이 많은 경기다.

에이스 윤석민은 28일 시범경기 두 번째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민은 선발로 예정됐던 22일 사직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한 차례 등판을 결했다. 선 감독 앞에서의 불펜 피칭으로 이날 경기를 대신했던 윤석민은 떨어진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행연습을 끝낸 선동열호의 '진짜' 전력 KIA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프링캠프에 9박10일 긴~원정길 돌아온 호랑이들

"날마다 짐싸고 들고
컨디션 조절 힘들어"

'호랑이 군단'이 9박10일의 고행군을 끝내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6일 시범경기를 위해 집을 꾸러 인천으로 향했다. 13일 스프링캠프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9박10일의 긴 원정길이었다.

선수단은 17일 SK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을 시작으로 넥센-롯데-두산과의 원정경기를 치렀다. 인천-서울-부산-서울을 찍고 광주로 돌아온 고행군이었다. 여기에

곳은 날씨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22일 부산에서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고, 23일에는 롯데와 빗속에서 경기를 했다. 5회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선수단은 다음날인 24일에는 눈까지 맞으면서 그라운드를 뛰었다. 이날 두산과의 경기는 5회 기상악화로 2-2 콜드게임으로 끝났다.

길고 긴 원정길에 선수들은 체력과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다. 나지완은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고전을 했다. 공은 보이는데 몸이 풀리면서 자꾸 빗맞고, 평소

는 하체 운동을 하면서 밸런스 잡는데 신경을 쓰는데 계속 이동을 하다보니 웨이트를 할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며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배트를 짧게 잡고 공을 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종범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다.

이종범은 "시범경기라서 3일턴이 아니라 이를 단위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경기장을 옮겨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을 풀고 나면 곧바로 다시 집을 싸고, 뭘 빼트리고 오지 않았나 걱정을 하고 다녔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월 10일 프로야구 광주 개막전 주차장 크게 늘린다

광주시, 교통 종합대책

상무역·농성역 셔틀버스

광주시가 2012 프로야구 광주개막전(4월10일)을 앞두고 시민불편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주차대책으로 인근 LH 공사 소유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105면을 확보했고, 개막 당일엔 한해 인근 효광초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또 천변우로는 탄력적 주차장 허용구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KIA 타이거즈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개막전 3연전 기간(4월10~12일) 상무역과

농성역에서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15~18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운행코스는 상무역-광천터미널-경기장, 농성역-서광주농협-광주역-경기장이다. 개막전 3연전 이후에는 농성역-신세계백화점-경기장을 순환 운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막전 이전에 KI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관람객에게는 입장요금 1000원을 할인해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장 내 자전거주차대 150면이 마련됐고, 분실방지를 위한 관리요원도 배치된다.

광주시 노회용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시민 숙원사업인 야구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중교통으로는 무등경기장을 경유하는 일곡38, 풍암16, 금남58, 송정98, 임곡89, 지원151, 운림51, 참단95, 용전84 등 9개 노선과 경신여고나 광천2교 방향으로 송암47, 풍암26, 상무64, 봉선37, 문흥18, 문흥48, 봉선27, 송암72, 수안49, 용봉83 등 10개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한편 새 야구장 공사도 정문과 중문이 폐쇄되면서 후문출입구가 정비됐고, 내야 지정석 입구 맞은편 무등로 방향에 보행자를 위한 임시 출입구가 개설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